영어어문교육 *제30권* 4호 2024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4.30.4.91

선 취업 후 진학 학생들을 위한 4년제 성인전담 대학의 학습자 친화형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연구*

남은희
(명지대학교)

Nam, Eun-hee. (2024). A Study on a learner-friendly English class at college for work-study adult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0*(4), 91-115.

With the rapid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universities are being asked to adopt a lifelong education (LiFE) system. In order for lifelong education to succeed, not only national support but also various discussions and efforts within universities, which are the sites of actual education, must be supported. As part of these efforts, they have to pay attention to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work-study students but also their needs and opinions related to English learni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these factors to help offer learner-friendly college English programs at 4-year adult college. To do this, two set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one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nd the other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research was implemented for 15 weeks with 80 college student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beliefs of freshmen in English language? 2) What are the needs for college English classes? 3) What are the obstacles to learning English as work-study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effective English classes at 4-year adult college for work-study learners.

[adult learner friendly college English class/difficulties of learning English/beliefs about English leaning/needs analysis for English learning/work-study learners, 성인 학습자 중심 교양 영어/영어학습 장애/영어학습에 대한 믿음/영어학습 요구 분석/재직 학습자]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5313)

Ⅰ. 서론

심각한 저 출산으로 인한 교육 수요의 부족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학들은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학령기 학생을 대체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대학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수한 물적·인적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의 도입이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의 도입은 신입생 수의 감소로 위기를 겪는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지속하고, 재직학습자를 실무 역량을 지닌 직장인으로 재교육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에게는 직업적 성공을 도우며, 기업과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권고된다. 특히 신입생 급감으로 고조되는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전통적 학령기 학생만을 위한 대학이라는 기능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KBS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대학 진학 대상자인 19살 인구는 2023년 488,000여 명에서 2042년에는 233,000천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현재 같은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40년 이후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게 된다(김효경, 이형관, 2024)라고 발표한 최근의 보도는 위기가 목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을 국가 재도약의 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7년)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김정현, 김경록, 2022).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구상의 근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라이프(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라이프 대학은 대학이 성인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 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 취득과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체제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LiFE) 지원 사업은 학령기 학생 위주인 대학 운영을 성인학습자 친화적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2008년 시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직업전환 교육과 재취업 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입생 정원에서 학령기 학생을 감축하고 성인 학습자를 증원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18년 525명에서 2022년에는 1,988명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22). 또한, 재직자를 포함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는 78.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줌으로써(최동선 외, 2021) 대학의 고졸 재직자나 성인학습자에 특화된 단과대학이나 학부, 학과를 만들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주는 선 취업 후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체제는 정부의 지속 지원과 지원 확대에 따라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양적 확장만으로는 성인 전담 대학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 성인과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전통적 학생과 동등하게 학력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화에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인학습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학령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문제점(김혜경 외, 2019)이 있으며 그 결과, 교육 방법이나 학습자 지원 등에서 대학이 성인친화형 교육 운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임영희, 심현, 2018)는 지적이 있다. 성인 전담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학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대학의 성인 친화적 체질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참여자인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안현용, 2021). 그러나 현재까지 성인 학습자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학 내 평생교육을 다루는 현황과 실태를 다루는 정책 보고서 수준에서 다루어 지는데 그치고 있다(오석영 외, 2020). 또한 성인 학습자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법론적인 분야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심미경, 2022).

효과적인 교육과정 제공이라는 논제는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요인 분석과 기대와 필요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영어는 선 취업 후 진학한 재직학습자들의 경우, 전통적 학령기 학생과는 다르게 영어 친화성이 낮거나, 영어 학습에의 공백기가 존재함으로써 타 교양과목과는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며, 외국어가 도구이자 목표가 됨으로써 영어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교과에 대해 지닌 개인적 배경과 요구사항,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믿음 등은 학습 과정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llis, 2008) 이들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필요하다. 이에 기반을 둔 자기 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활동(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을 넘어서, 단순히 학습의 결과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계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습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홍소영, 2018) 효과적인 수업 운영의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전담대학의 선 취업 후 진학 재직학습자들의 개인적 배경을 파악하고, 영어 대한 믿음,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 영어 학습에의 어려움 등을 알아보아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 친화형 교양 영어 수업 마련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가?
2. 영어 학습자로서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성, 교양 영어 운영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3.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장애요인은 어떠한가?

Ⅱ. 문헌 조사

1. 선 취업 후 진학 재직학습자 성인전담 단과 대학

2010년 도입된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인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시행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에 대한 기회 확대와 기존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교육부, 2015). 교육부(2024)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364,000명이었던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후인 2023년 329,000으로 줄어든 반면에 성인 학습자의 대학 입학생 수는 같은 기간인 10년 동안 3,521명에서 11,064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확산하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배경으로는 첫째,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현장 경험 발전을 위한 학업의 요구가 증가하고,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 ·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일자리 교육 수요 증대, 그리고 성인친화형 고품격 열린 대학 육성에 있다(이병준, 박정현, 2021). 나아가, 지속적인 지역의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전체 인구와 입학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로서 지역과 연계한 공동의 대응이라는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교육부, 202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 교육 환경의 빠른 변화로 대학 내 성인 학습자의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사업(LiFE 2.0)으로 개편되어 진행 중이다. 그 배경에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학이 평생교육 허브로 자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2023)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기술혁신에 따라 학령기에 배운 지식 · 기술만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평생학습 사회를 맞고 있음을 주지하고,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직무 전문성 확보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 2주기 대학의 LiFE 2.0을 통해 2023년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저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환경 발전으로 인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직전 년도 사업에서 나타난 필요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으로 지역특화 평생교육체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지역특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와 역할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정원 외 모집 대상을 재직자나 만학도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성인학습자 모집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 외 모집 대상의 확대 필요성(교육부, 2024)도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근간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초기 실패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며(심미경, 2022), 이는 일반 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성인학습자들이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대학의 학위 장사 확대라는 부정적 평가가 컸기 때문이다(배영주, 2021). 특히 성인학습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생활에서 학령기 대학생과는 다른 다양한 내적, 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고려하여, 대학에서는 그들의 학업, 직장생활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성인학습자의 상황 맥락 및 개별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학습 지원의 필요성은(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2018) 성인전담 대학의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준비 부족과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성인 전담 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의 평생 교육체제의 취지에 맞는 내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각자의 사회생활, 직장 등 경제적 활동, 사회적 관계와 위치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재정적, 시간적 요인, 그리고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권양이, 2018)을 지니기 때문에, 전통적 학령기 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육 제공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직학습자 친화 교양영어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학생들이 선택한 학문 혹은 직업 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로 인식된다(김혜경 외, 2019). 교양 교육은 일정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는 전공 분야와 달리,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키우기 위한 핵심 영역이면서 대학의 독특한 교육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그 중, 국가가 글로벌 지식 경제에 빠르게 편입되면서 일터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익히기 위한 추가적인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채재은, 한숭희, 2015), 재직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 취업 후 진학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양과목에서의 기초 역량은 의사소통역량으로 나타난(임영희, 심현, 2018) 점은 주지할 만하다. 의사소통역량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규명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의사소통 역량을 성공적인 삶과 사회 생활을 위한 핵심 역량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윤정용, 맹은경, 2022). 특히 영어는 Lingua Franca(세계어)로의 위치를 다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영어 의사 소통능력 지닌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대학의 의무 중 하나(오은주, 2021)라는 주장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강의실 현장에서 영어 교과는 영어, 그 자체가 학습 장애가 되면서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 모국어로 학습하는 타 교과와는 달리 영어 수업은 외국어인 영어가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이다. 게다가 선 취업 후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 단절이 존재하고 일부 학생은 입학 전에 영어를 접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학급 구성원 간의 기초수학 능력 차가 심히 불균형한 것 역시 현실이다. 성인 전담 대학에 대해 정부가 갖는 목표는 대학 자체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와 재교육 강조에 있다(교육부, 2022)고 할 때, 성인학습자의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 학습자는 개개인의 환경적, 물리적, 정서적 측면의 차이, 그리고 인생에서의 경험과 그 간의 역할에서 학습자 마다 갖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뿐만 아니라 특정한 학습 조건을 형성하며 학습 조건을 구성하는 학습자의 배경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효과는 달라진다(방희봉 외, 2017). 교양 영어 또한 다르지 않아, 성인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와 기대, 목표 역시 상이 할 수 있고 학생 특성에 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습 목적 및 목표가 학습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은실, 2019)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재직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해 온 학과별 전공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양교육 과정은 학령기 학생에게 맞춰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성인 학습자 대상 교양교육으로는 미흡하다(김혜경 외, 2019)는 지적이 있다. 여타 교양 과목과 다르지 않게 영어 교과도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과정에 대한 방안 마련과 지원이 요구되나, 그들을 위한 교양 영어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력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결과, 재직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유일한 재직학습자의 영어 수업과 관련한 연구는 영어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단기 영어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관한 윤정용과 맹은경(2022)의 연구에 불과하다. 결국, 재직학습자 친화 교양영어라는 논제는 선 취업 후 진학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영어 교육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선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친 학습자형 교양영어 수업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교양영어 운영을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성인 학습자 전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고, 그들의 영어와 관

련한 배경과 외국어로서 영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 또 영어 수업에 참여하여 경험하고 인지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 영어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게 된다. 입학 후 첫 수업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영어 수업을 마친 학기 말에는 영어에 대한 평가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로서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와 영어 학습에의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A 대학에서 운영 중인 성인 전담 단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A 대학은 입학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 혹은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대상으로 입학시험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A 대학의 성인 전담 단과대학은 교양 영어를 필수 교과로 개설하여 1학년에서 영어 1과 영어 회화 1, 2학년에서 영어 2, 영어 회화 2를 수강하도록 한다. 본 연구 대상은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등 전체 학과 1학년 학생들로서 참여 수는 80명이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개인 배경 파악을 위해 설문해 본 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25명(31.3%), 여자가 55명(68.7%)이며, 연령대는 20대가 74명(92.5%), 30대가 6명(7.5%)로 대부분이 20대이다(A 대학의 교양 영어는 50대 이상의 학생은 시니어 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취업 후 입학이라는 그들의 특성 상, 대학에 들어 오기 전 영어 학습과의 단절 기간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3년 미만이 28명(3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9명(36,3%), 5년 이상 10년미만이 20명(25%) 였으며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명(3.8%) 였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인 것과 유관하다. 또한 이들에게 선 취업 후 진학 성인 전담 대학을 지원하게 된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54명(67.5%)의 학생이 학력 보강을 꼽았으며, (이직, 전직 등) 취업관련 26명(32.5%), 직무역량 강화 22명(27.5%), 개인적 소양 개발 20명(25%), 경력 개발 12명(15%)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졸업을 위한 학력 보강이 성인전담대학 입학 동기 중 가장 컸다. 이상과 같은 배경의 성인 학습자들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차례 시행하며, 첫 설문지는 영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인 1주차에, 두 번째 설문지는 영어 수업을 마친 후(15주차)에 실시한다. 첫 주에는 선 취업 후 진학한 신입생으로서 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믿음에 응답하게 되며, 마지막 주에는 한 학기 수업을 뒤, 영어 학습자로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 14번 문항을 제외하고 두 설문지 모두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의 '5단위 리커트 방식(Five Point Likert Scale)'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1차 설문지 14번, 2차 설문지 7번 문항은 질문에 부합하는 보기를 표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영어에 대한 믿음 설문지

본 연구는 영어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Horwitz(1988)가 개발한 34개 문항의 BALLI(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을 사용한다. Horwitz(1988)는 BALLI를 5가지 항목(언어 학습의 난이도, 외국어 적성, 언어 학습의 본질,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동기와 기대)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신념을 조사하는 측정 도구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rwitz의 BALLI를 사용하되 우리나라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언어를 '영어'로, 설문지 문항의 일부 단어는 '한국'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로 사용하며, 표 1은 영어에 대한 믿음을 묻는 설문지의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영어에 대한 믿음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영어 학습의 어려움	3, 4, 6, 14, 24, 28	6
외국어 적성	1, 2, 10, 15, 22, 29, 32, 33, 34	7
언어 학습의 본질	5, 8, 11, 16, 20, 25, 26	9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7, 9, 12, 13 ,17, 18, 19, 21	8
동기와 기대	23, 27, 30, 31	4
합계		34

2) 영어에 대한 평가 설문지

두번째 설문지는 영어에 대한 평가 설문지로, 이는 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난 뒤 실행하며 영어 학습자로서의 평가와 영어 학습에의 장애 요인 등을 측정하는 두 영역을 포함한다.

(1) 영어 학습자로서의 평가 설문지 구성

영어 학습자로서의 평가에 관한 설문지는 선 취업 후 진학 재직학습자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대상자에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이에는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성, 영어 수업의 진행, 그리고 교양 영어 운영에 대한 요구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구체적 항목별 구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영어 학습자로서의 평가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영어 능력	1, 2, 3, 4, 5, 6, 7	7
영어 학습 기대	8, 9, 10, 11, 12, 13, 14	7
영어수업 진행	15, 16, 17, 18, 19, 20	6
교양 영어 운영	21, 22, 23, 24, 25, 26, 27	7
합계		27

(2) 영어 학습장애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Mark 외(2006)가 제시한 성인 학습자의 학습장애 요인을 차용하되, 학습장애를 영어 교과에의 학습장애로 구체화하였다. Mark 외(2006)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장애 요인에 대하여 개인적(낮은 의욕, 공부 문화 결여, 부정적 교육 경험), 상황적(시간 부족, 교육기관과 회사와의 거리, 학비 부담), 제도적(교육기관의 관심 부족) 그리고 정보적(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요소) 장애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영어 학습장애 설문에 대한 항목별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영어 학습장애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개인적 장애	28, 29, 30, 31	4
상황적 장애	32, 33, 34, 35	4
제도적 장애	36, 37, 38	3
정보적 장애	39, 40	2
합계		13

3) 연구 도구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가 연구 도구로서 믿을 만한 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계수(Ch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 설문지인 영어에 대한 믿음 34문항의 전체 신

뢰도는 .8020이며, 영어에 대한 평가와 영어학습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사후 사용한 40개 문항의 설문지 신뢰도는 .8286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측정도구로서 신뢰할 만하다. 아래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 계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설문지 신뢰도

설문지	문항 수	*M*	*SD*	Chronbach's Alpha
사전	34	3.60	0.94	0.8020
사후	40	3.33	1.11	0.8286

Ⅳ. 결과 및 논의

1. 영어 믿음에 대한 결과

(1) 영어 학습의 어려움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영어 학습의 어려움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3)	영어는 다른 언어들보다 배우기 쉽다.	1 (1.3)	10 (12.5)	20 (25.0)	42 (52.5)	7 (8.7)	3.6
(4)	내가 배우고 있는 영어는 나의 수준과 적합하다.	0 (0.0)	31 (38.8)	39 (48.7)	6 (7.5)	0 (0)	3.4
(6)	나는 궁극적으로 영어를 매우 잘하도록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1 (1.3)	22 (27.5)	30 (37.5)	23 (28.7)	4 (5.0)	2.9
*(14)	누군가가 영어를 배우는데 하루에 한 시간을 쓴다면, 유창해지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2 (2.5)	24 (30.0)	30 (37.5)	17 (21.3)	7 (8.7)	3.0
(24)	영어 사용에 있어 듣기 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	2 (2.5)	12 (15.0)	26 (32.5)	29 (36.3)	11 (13.7)	3.4
(28)	말하는 것보다 영어를 읽고 쓰는 것이 더 쉽다.	1 (1.3)	11 (13.7)	29 (36.3)	31 (38.7)	8 (10.0)	3.4

Note. * (14): ①1년 미만 ②1-2년 ③3-5년 ④5-10년 ⑤ 1시간으로는 영어를 배울 수 없다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의 어려움에 대해, '영어가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문항에는 60%가 '(매우)그렇다'고 답하였으나, '현재 배우고 있는 영어가 자신의 수준과 적합하다'고 답한 학생은 단지 7.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타 언어 보다 영어 학습에의 어려움은 덜하나, 학생들의 수준과 영어 수업

과의 수준에 대한 면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를 잘 배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1/3 정도 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영어 이해에 있어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50%) 답하였고, 말하는 것 보다는 읽고 쓰는 것이 더 쉽다고 응답한 학생이 과반 가까이 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 이해에 있어 듣기보다는 말하기, 말하기 보다는 읽고 쓰는 것이 더 쉽다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2) 외국어 적성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의 외국어에 대한 적성을 알아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외국어 적성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1)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쉽다.	0 (0.0)	5 (6.3)	14 (17.5)	38 (47.5)	23 (28.7)	4.0
(2)	영어를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0 (0.0)	7 (8.7)	20 (25.0)	46 (57.5)	7 (8.7)	3.7
(15)	나는 영어에 소질이 있다.	4 (5.0)	14 (17.5)	35 (43.7)	21 (26.2)	6 (7.6)	3.1
(10)	이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쉽다.	1 (0.3)	6 (7.5)	18 (22.5)	44 (55.0)	11 (13.7)	3.7
(22)	영어를 배우는 데는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10 (12.5)	24 (30.0)	10 (12.5)	25 (31.3)	11 (13.7)	3.0
(29)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한다.	5 (6.3)	21 (26.3)	28 (35.0)	19 (23.7)	7 (8.7)	3.0
(32)	하나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하다.	0 (0.0)	0 (0.0)	19 (23.8)	46 (57.5)	15 (18.7)	4.0
(33)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배운다.	1 (1.3)	6 (7.5)	29 (36.3)	31 (38.7)	14 (17.5)	3.7
(34)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0 (0.0)	1 (1.3)	18 (22.5)	41 (51.2)	19 (23.7)	4.0

표 6에서 보듯, 학생들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쉽다'와 '하나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80% 안팎의 높은 긍정으로 답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한다'는 1/3 정도의 학생이 인정하여 대체로 언어 학습에서의 성별 간, 과목 간 편견은 대체로 적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75%,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배운다'에는 60% 가까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다만,

‘나는 영어에 소질이 있다’라는 문항에는 1/3의 학생만이 긍정하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우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어 학습에의 효능감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언어 학습의 본질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언어 학습의 본질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언어 학습의 본질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배우고 있는 영어는 한국어와 같은 구조이다.	9 (11.3)	47 (58.7)	18 (22.5)	6 (7.5)	0 (0.0)	3.7
(8)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영어권 문화를 알아야 한다.	0 (0.0)	3 (3.7)	11 (13.7)	51 (63.7)	15 (13.9)	4.0
(11)	영어는 영어 사용 국가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낫다.	1 (1.3)	5 (6.2)	23 (28.8)	42 (52.5)	9 (11.2)	3.7
(16)	영어를 배우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어휘를 많이 배우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1 (1.3)	7 (8.7)	23 (28.8)	47 (58.7)	2 (2.5)	3.5
(20)	영어를 배우는 것은 대부분 많은 문법 규칙을 배우는 문제이다.	2 (2.5)	8 (1.0)	21 (26.3)	43 (53.7)	6 (7.5)	3.5
(25)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1 (1.3)	10 (12.5)	21 (26.3)	37 (46.2)	11 (13.7)	3.6
(26)	영어를 배우는 것은 대부분 한국어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0 (0.0)	13 (16.3)	30 (37.5)	31 (38.7)	6 (7.5)	3.4

표 7에서 보듯, 학생들은 내가 ‘배우고 있는 영어는 한국어와 같은 구조이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 7.5%, ‘매우 그렇다’에는 0%로 답하여 거의 모든 학생이 한국어와 영어라는 외국어의 구조는 같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64%의 학생은 영어권 국가에서의 영어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78%의 학생은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영어권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언어 학습에서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60 % 안팎의 학생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와 문법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은 말하기를 강조하면서 문법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영어 학습 내용 고려를 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라는 문항에서 60%의 학생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하여 외국어 수업인 영어 교과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타 교양 수업과 차별화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대부분 한국어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라는 문항에는 부정적 의견은 16.3%에 그친 반면 긍정적 의견은 과반 가까이 나타났다.

(4)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답한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의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7)	훌륭한 억양으로 영어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1 (1.3)	10 (12.5)	25 (31.3)	36 (45.0)	8 (10.0)	3.5
(9)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영어로 말해서는 안 된다.	5 (6.3)	28 (35.0)	25 (31.3)	7 (8.7)	15 (18.7)	3.0
(12)	누군가가 영어를 말하면, 영어 연습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1 (1.3)	16 (20.0)	27 (33.7)	28 (35.0)	8 (10.0)	3.3
(13)	만약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추측하는 것은 괜찮다.	1 (1.3)	5 (6.1)	21 (26.2)	41 (51.3)	12 (15.0)	3.7
(17)	영어는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0 (0.0)	1 (1.3)	8 (10.0)	41 (51.2)	30 (37.5)	4.3
(18)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것을 의식한다.	0 (0.0)	4 (5.0)	16 (20.0)	47 (58.2)	13 (16.3)	3.7
(19)	초기에 실수를 허용한다면 나중에 실수를 없애기 어려울 것이다.	1 (1.3)	17 (21.2)	21 (26.2)	36 (45.0)	5 (6.3)	3.3
(21)	어학 실습실에서 영어를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1 (1.3)	2 (2.5)	18 (22.5)	46 (57.5)	13 (16.2)	3.9

영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에 있어 학생들은 연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따르면,‘영어는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89%, 그리고 ‘영어는 어학 실습실에서 연습하는 것을 중요하다’에는 74%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연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75%)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것을 의식한다’고 답하였으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영어로 말해서는 안 된다’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응답(41.3%)이 긍정의 답(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반드시 정확하게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66%)의 학생들이 ‘만약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추측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으나 ‘훌륭한 억양으로 영어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반수 이상(55%)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영어 실행에 있어 어휘보다는 발음을 중요하게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동기와 기대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의 동기와 기대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동기와 기대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영어를 매우 잘하게 된다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1 (1.3)	4 (5.0)	9 (11.2)	44 (55.0)	22 (27.5)	4.0
(27)	만약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배운다면,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 (0.0)	2 (2.5)	10 (12.5)	27 (33.7)	41 (51.3)	4.3
(30)	한국인들은 영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1.3)	3 (3.7)	17 (21.2)	35 (43.8)	24 (30.0)	4.0
(31)	나는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잘 알아가고 싶다.	0 (0.0)	4 (5.0)	19 (23.7)	36 (45.0)	21 (26.3)	3.9

표 9에서 보듯,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의 동기와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만약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배운다면,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에는 85%의 학생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여 도구적 동기가 매우 강하였으며, 83%의 학생은 '영어를 매우 잘하게 된다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의 기저에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의 인식(78%)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잘 알아가고 싶다'는 긍정의 기대(71%)를 동반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도구로 하여 보다 나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영어 사용으로 보다 많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어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평가

한 학기 영어 학습을 경험한 뒤, 영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영어에 대한 평가 설문지에는 영어 학습자로서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영어 학습 장애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 에는 영어 능력, 영어 학습의 필요성, 영어 수업 진행, 교양 영어 운영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영어 능력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 능력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1)	나의 영어 듣기 능력은 영어 수업에 적절하다.	6 (7.5)	19 (23.7)	34 (42.5)	18 (22.5)	3 (3.8)	2.9
(2)	나의 영어 말하기 능력은 영어 수업에 적절하다.	6 (7.5)	28 (35.0)	30 (37.5)	11 (13.7)	5 (6.3)	2.8
(3)	나의 영어 읽기 능력은 영어 수업에 적절하다.	4 (5.0)	22 (27.5)	35 (43.7)	15 (18.8)	4 (5.0)	2.9
(4)	나의 영어 쓰기 능력은 영어 수업에 적절하다.	14 (17.5)	22 (27.5)	31 (38.7)	13 (16.3)	0 (0.0)	2.5
(5)	나는 교양영어 수업에 필요한 영어 문법에 대해 적절하게 알고 있다.	10 (12.5)	24 (30.0)	34 (42.5)	11 (13.7)	1 (1.3)	2.6
(6)	나는 교양영어 학습에 필요한 영어 어휘를 적절하게 알고 있다.	10 (12.5)	22 (27.5)	32 (40.0)	16 (20.0)	0 (0.0)	2.7
*(7)	나의 영어 실력은_____이다.	6 (7.5)	19 (23.7)	34 (42.5)	18 (22.5)	3 (3.8)	2.1

Note. *(7):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42.5%) 학생이 자신들의 영어 능력을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가운데, 중하와 하, 그리고 중상과 상으로 평가한 학생들은 25%에서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 평가와는 별도로 위 표에서 보듯, 영어 능력에 대한 항목의 모든 문항에서 평균은 2%대로 낮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이 교양 영어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75% 가까운 학생들이 '나의 영어 실력은 중하 이하'라고 낮게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기와 듣기는 각각 수업에 적합하다, 혹은 매우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20%, 26.3%, 읽기는 23.8%로 낮다. 그 외 어휘는 20%, 쓰기 16%로 더 낮은 가운데, 특히 문법 능력은 15%만이 수업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언어 학습의 본질 항목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문법 규칙에 관한 것이다'라는 문항에 60%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 친화적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논의에 반영되어야 할 결과라 하겠다.

(2) 영어 학습 필요성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평가하는 영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영어 학습 필요성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8)	영어는 나의 미래에 중요하다.	1 (1.3)	6 (7.5)	9 (11.2)	36 (45.0)	28 (35.0)	4.1
(9)	영어 수업은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1.3)	4 (5.1)	20 (25.3)	37 (46.8)	17 (21.5)	3.8
(10)	영어 학습은 직장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0 (0.0)	9 (11.2)	25 (31.3)	28 (35.0)	18 (22.5)	3.7
(11)	영어 수업은 전공 학습이나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필요하다.	2 (2.5)	3 (3.7)	14 (17.5)	38 (47.5)	23 (28.8)	1.0
(12)	영어 학습은 진급이나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필요하다.	5 (6.2)	2 (2.5)	15 (18.7)	32 (40.0)	26 (32.5)	3.9
(13)	영어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능이므로 배워야 한다.	1 (1.3)	1 (1.3)	14 (17.5)	34 (42.5)	30 (37.5)	4.1
(14)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영어는 반드시 배워야 할 도구이다.	1 (1.3)	1 (1.3)	8 (10.0)	36 (45.0)	34 (42.5)	4.3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여주었다. 78%의 학생이 ‘영어는 나의 미래에 중요하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대부분의 문항에서 2/3가 넘는 긍정의 답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영어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능이므로 배워야 한다’(80%)에 가장 높은 동의의 의견을 표하였으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영어는 반드시 배워야 할 도구이다’(78%), ‘영어 학습은 진급이나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필요하다’(73%), ‘영어 수업은 전공 학습이나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필요하다’는 70%의 학생이 동의하였다. 또한 78%의 학생이 ‘영어 수업은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답해 교양영어 수업의 강한 필요성과 부합하는 기대를 나타내었다. 다만, 영어 학습은 직장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58%가 긍정의 답을 하였는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거나, 업무에 있어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3) 영어 수업 진행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진행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영어 수업 진행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15)	영어 듣기 수업 강화가 필요하다.	4 (5.0)	4 (5.0)	25 (31.2)	28 (35.0)	19 (23.8)	3.7

(16) 영어 말하기 수업 강화가 필요하다.	3 (3.7)	6 (7.5)	20 (25)	31 (38.8)	20 (25.0)	3.7
(17) 영어 읽기 수업 강화가 필요하다.	3 (3.7)	6 (7.5)	19 (23.7)	35 (43.8)	17 (21.3)	3.7
(18) 영어 쓰기 수업 강화가 필요하다.	2 (2.5)	5 (6.3)	20 (25.0)	37 (46.3)	16 (20.0)	3.8
(19) 영어 문법 강좌(수업)가 필요하다.	1 (1.3)	2 (2.5)	19 (23.7)	38 (48.7)	19 (23.8)	3.9
(20) 짝 활동이나 그룹 학습의 확대로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 보다 필요하다.	11 (13.7)	21 (26.2)	18 (22.5)	26 (32.5)	4 (5.0)	2.9

영어 수업 진행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영어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라는 면에서 유의하다. 이 항목에 관하여 학생들은 영어 문법 수업에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내었다. 73%의 학생이 영어 문법 수업을 원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앞서 살펴본 항목들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학생들의 일관된 영어 문법 수업에 대한 요구는 현재 독립된 교과목으로 영어 문법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항에서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문법 수업 혹은 수업에서의 문법 비중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그 밖의 진행중인 영어의 네 가지 기술과 관련한 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쓰기 수업 강화(65.1%), 읽기 수업 강화(66.3%), 말하기 수업 강화(63.8%), 그리고 듣기 수업의 강화(5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짝 활동이나 그룹 학습의 확대로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 보다 필요하다'에는 37.5%만이 긍정으로 답하여 이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다.

(4) 교양 영어 운영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교양 영어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교양 영어 운영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21)	교양 영어 과목의 다양화(영문법, 영작문, 시청각영어 등)가 필요하다.	2 (2.5)	7 (8.7)	18 (22.5)	48 (60.0)	5 (6.25)	3.6
(22)	영어 수업의 강좌 당 학생 수는 현재보다 소규모 강의가 바람직하다.	4 (5.0)	12 (15.0)	28 (35.0)	27 (33.7)	9 (11.3)	3.3
(23)	보다 세분화된 수준 별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	1 (1.3)	6 (7.5)	21 (26.2)	35 (43.7)	17 (21.3)	3.8
(24)	영어 수업의 주당 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5.0)	15 (18.7)	35 (43.7)	21 (26.3)	5 (6.3)	3.1
(25)	영어 교과목의 적정 학기는 현재의 4학기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7.5)	21 (26.2)	30 (37.5)	19 (23.8)	4 (5.0)	2.9
(26)	영어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투터링)이 필요하다.	2 (2.5)	16 (20.0)	25 (31.2)	30 (37.5)	7 (8.8)	3.3

(27)	학력 보강을 위해 방학 중 재직자를 위한 영어 기초특별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3.7)	11 (13.7)	29 (36.3)	30 (37.5)	7 (8.8)	3.3

학생들에게 교양 영어 운영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과목의 다양화와 기존 수준별 수업의 보다 더 세분화 필요성에 강한 요구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교양 영어 과목의 다양화(영문법, 영작문, 시청각영어 등)가 필요하다'와 '보다 세분화된 수준 별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에 학생 2/3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다만, '학력 보강을 위해 방학 중 재직자를 위한 영어 기초특별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와 '영어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튜터링)이 필요하다'에는 동일하게 과반에 못 미치는 학생 만이(46%) 필요하다고 답하여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도 변화의 요구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영어 수업의 강좌 당 학생 수는 현재보다 소규모 강의가 바람직하다'에는 45%의 학생이 긍정하였지만, '영어 수업의 주당 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는 33%, '영어 교과목의 적정 학기는 현재의 4학기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는 29%에 그쳐 긍정의 답변은 대체로 낮다.

3. 영어 학습 장애 분석 결과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로서 갖게 되는 영어 학습 장애에 관련한 네 가지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적 장애

선 취업 후 진학한 재직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한 개인적 장애에 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에서 볼 수 있다.

표 14
개인적 장애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28)	영어 기초 실력 부족하여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3 (3.7)	9 (11.3)	20 (25.0)	28 (35.0)	20 (25.0)	3.7
(29)	영어에 대한 낮은 자신감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4 (5.0)	9 (11.2)	19 (23.7)	29 (36.3)	19 (23.8)	3.6
(30)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6 (7.5)	11 (13.7)	17 (21.3)	29 (36.2)	17 (21.3)	3.5
(31)	공부에 대한 문화(습관) 결여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4 (5.0)	10 (12.5)	22 (27.5)	35 (43.7)	9 (11.3)	3.4

위의 표에서 보듯, 과반이 넘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

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기초 실력 부족하여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에 60%, '영어에 대한 낮은 자신감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에는 61%의 학생이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과반을 넘었다. 이는 성인 전담 대학 특성상,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 취업 후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지닌 배경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문화(습관) 결여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5%의 긍정의 답을 하여 학습에 대한 의지, 참여에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다.

(2) 상황적 장애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한 상황적 장애에 관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상황적 장애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32)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수업 이외의 개별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3 (3.8)	7 (8.8)	24 (30.0)	30 (37.5)	15 (18.8)	3.6
(33)	퇴근 후 수업과 주말에 집중된 수업으로 집중력이 낮아져 영어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	3 (3.8)	7 (8.8)	23 (28.7)	29 (36.2)	18 (22.5)	3.7
(34)	업무와 학업 병행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낀다.	5 (6.2)	4 (5.0)	23 (28.7)	33 (41.3)	15 (18.8)	3.6
(35)	영어를 통한 경력 개발 가능성이 적은 점이 영어 학습에 장애가 된다.	10 (12.5)	23 (28.7)	31 (38.7)	13 (16.3)	3 (3.8)	2.7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전담 대학 학생들은 전통적 학생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기인하는 학습에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학습과의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수업 이외의 개별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56%,'퇴근 후 수업과 주말에 집중된 수업으로 집중력이 낮아져 영어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 58%, 그리고 '업무와 학업 병행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낀다'에 59%의 학생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어를 통한 경력 개발 가능성이 적은 점이 영어 학습에 장애가 된다'에는 20% 만이 긍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영어 학습에서의 기대를 보여주었다.

(3) 제도적 장애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한 제도적 장애에 관한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제도적 장애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36)	전통적 학생(학령기)과 동일한 수업 운영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7 (8.7)	17 (21.2)	42 (52.5)	12 (15.0)	2 (2.5)	2.8
(37)	(원격 학습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의 부재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7 (8.7)	19 (23.7)	33 (41.3)	15 (18.8)	6 (7.5)	2.9
(38)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8 (10.0)	19 (23.7)	34 (42.5)	16 (20.0)	3 (3.8)	2.8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도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전통적 학생과 동일한 수업 운영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질문에 17.5% 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한 교과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 학습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의 부재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26.3%,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에는 23,8% 만이 동의하여 영어 교과과정에도 대체로 적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정보적 장애

선 취업 후 진학 재직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서 느끼는 정보적 장애의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정보적 장애

문항 번호	설문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39)	정보를 공유하는 학우나 동아리 활동의 부족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11 (13.7)	19 (23.7)	33 (41.3)	13 (16.3)	4 (5.0)	2.8
(40)	교내에 필요한 영어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10 (12.5)	16 (20.0)	33 (41.3)	18 (22.5)	3 (3.8)	2.9

위의 표 17에서 보듯, 학생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영어 학습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적 장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의

결과를 보면, ‘정보를 공유하는 학우나 동아리 활동의 부족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에는 21.3%, ‘교내에 필요한 영어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에는 26.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하여, 2/3 이상의 학생들은 학우들에게나 동아리, 혹은 교내에서의 자료 등을 통해 영어 학업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재직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 친화 형 교양영어 수업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4년제 성인전담대학에 입학한 재직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믿음,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영어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교육의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고, 수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 등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학습자 친화형 수업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가?, 영어 학습자로서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성, 교양 영어 운영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그리고 선 취업 후 진학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장애요인은 어떠한가? 등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답을 구하였다.

영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연구 결과, 단지 7.5%의 학생만이 현재 배우고 있는 영어가 자신의 수준과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그리고 중립적인 응답이 1/3 정도로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긍정의 믿음은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수업 제공이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 제안하며, 학기말에 실행된 수업 운영에 대한 기대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현재보다 세 분화된 수준별 영어 수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어 적성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1/3의 학생만이 자신이 영어에 소질이 있다고 답하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우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자기 평가의 결과는 입학 전, 영어 학습에의 단절과 입학 후에는 재직학습자의 특성 상,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배경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동기와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영어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는 도구적 동기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영어에 학습에 관심과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도록 배려하며, 학생들 스스로도 시간적 투자를 통한 영어 능력 향상과 자신감을 배양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3/4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아는 것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언어와 문화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깊은 유관성이 인정되어 온 바, 적절한 영미 문화 내용 활용은 흥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교과 범위에서의 한정된 수업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고려할 사항이다. 그 외,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에 있어 학생들 다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으나, 반드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답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88.7%) 영어 학습에는 반복과 많은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의 핵심은 연습이라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영어 믿음에 대한 마지막 항목인 동기와 기대에서 80% 가까운 학생들은 한국인들은 영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해 영어 학습에의 높은 동기를 보여주었으며, 85% 안팎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배운다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라고 답하여 영어 학습의 동기는 매우 높았다.

영어 학습자로 영어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지만 영어 수업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영어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4의 학생이 자신의 영어 능력은 중하 아래라고 응답한 가운데, 수업에 필요한 쓰기와 문법을 적절하게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15% 정도에 그쳤다. 이 같은 응답은 수업 내용에서 보다 강화되기를 바라는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학생들은 현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는 수업으로 영어 문법 수업을 우선으로 꼽았는데, 리터러시(literacy)와 관련한 영어 읽고 쓰기, 그리고 문법과 어휘 능력 향상과 관련한 수업의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80% 가까운 학생들이 세계화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영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도구로 인식하였으며, 75% 안팎의 학생들이 진급이나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혹은 전공 학습이나 대학원 등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영어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는 앞서 밝혀진 영어에 대한 높은 도구적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학생들은 교양 영어 과목의 다양화와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을 원하였다. 다만, 수업 시간, 수업 규모, 학기 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교양 영어 수업 운영의 유지를 선호하였고, 기초 학습반이나 (온라인) 튜터링 등 비교과과목에의 요구도는 낮았다. 그 외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통적 학생과 동일한 수업 운영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학습에의 어려움도 크지 않다고 답하여 학교라는 제도하에 제공되는 교과과정에 대체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직 학습자로서 갖게 되는 영어 학습과 관련한 장애 요인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2/3정도의 학생이 기초 실력 부족과 영어에 대한 낮은 자신감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전담 대학 입학 조건상,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한 성인이

라는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 밖에도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건 상, 개별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퇴근 후 수업과 주말에 집중된 수업으로 집중력 저하와 체력 저하로 학업에의 어려움을 표하였다. 그러나 영어와 낮은 경력 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0% 만이 긍정하여 미래를 위한 영어 학습에의 필요성과 기대는 높다.

이상에서 보듯,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학습자들은 영어에의 자신감은 낮지만, 영어 학습에의 동기와 기대는 매우 높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습자친화형 교양 영어 수업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Brown(1995)은 학습자들의 요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진다면 학습 목표 혹은 목적의 형태로 기술되고, 이러한 목표는 학습 활동, 교재, 시험 및 교육과정 전체 평가 과정 개발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한 학습자친화형 교양 영어 수업의 전제이기도 하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성인 전담 대학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이는 성인전담대학으로 지속적인 학생의 유입을 이끌어 대학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지속과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가치 실현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선취업 후 진학 재직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학이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교육부. (2015).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및 평생교육제도의 재구조화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교육부. (202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boardSeq=91719&lev=0&m=0304

교육부. (2023). *2 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Life 2.0) 기본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398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

교육부. (2024). *2024 2 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LiFE 2.0) 기본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lev=0&statusYN=W&s=moe&m=0304&opType=N&boardSeq=98277

권양이. (2018).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변천 탐구: 국민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4*(2), 1-27. https://doi.org/10.26857/JLLS.2018.5.14.2.1

김정현, 김경록. (2022). 교육, 패러다임 바꾼다…'평생학습' 전환해 파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8_0002140010&cID=10201 &pID=10200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 (2019).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3), 147-177.

김효경, 이형관. (2024). 폐과에서 폐교로...'벚꽃 엔딩' 현실로 [인구소멸].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0485&ref=N

방희봉, 이은상, 박하진. (2017).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6), 317-336.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6.030

배영주. (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과 대학의 평생교육적 체제 전환. *성인계속교육연구, 12*(2), 63-84. https://doi.org/10.20512/kjace.2021.6.30.63

심미경. (2022). 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16*(2), 339-356.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339

안형용. (2021). 성인 학습자 특성이 대학 평생교육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17*(1), 141-174. https://doi.org/10.35637/klehrd.2021.17.1.006

오석영, 구유정, 박대권. (20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오은주. (2021). 세계시민성 함양 및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영어 수업 모델 개발. *교양교육연구, 15*(4), 163-186. https://doi.org/10.46392/kjge.2021.15.4.163

윤정용, 맹은경. (2022). 대학의 재직학습자를 위한 단기 영어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영어교육, 23*(1), 66-82. https://doi.org/10.18095/meeso.2022.23.1.66

이병준, 박정현. (2021). 평생교육체제 단과대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 분석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2*(1), 1-18. https://doi.org/10.20512/kjace.2021.3.31.1

이은실. (2019). 사이버대학 교양영어 강의에서 성인학습자의 융합적 영어학습 목표 및 목적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5), 277-285. https://doi.org/10.17548/ksaf.2019.12.30.277

임영희, 심현. (2018). 성인 및 재직자를 위한 대학학위과정 운영 실태분석: 이해관계자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253~272. https://doi.org/10.24159/joec.2018.24.4.253

채재은, 한숭희. (2015).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1-24. https://doi.org/10.26857/JLLS.2015.11.11.4.1

최동선, 김남희, 류지은, 이상훈, 임언, 안현용, 임정훈. (2021).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홍소영. (2018). 학생 자기 평가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평가연구, 31*(1), 309-331. https://doi.org/10.31158/JEEV.2018.31.1.309

Brown, J. D. (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language program.* Heinle & Heinle.

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2018). *Results for "adult learner 360 case study".* https://www.cael.org/hs-search-results?term=adult+learner+360+case+study&type=SITE_PAGE&type= BLOG_ POST&type=LISTING_PAGE

Ellis, R. (2008).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Horwitz, E. (1988).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beginn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2*(3), 283-294.

Mark, R., Pouget, M., & Thomas, E. (2006). Adults in higher education: Learning from experience in the new Europe (2nd ed.). Peter Lang.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남은희(강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Email: hieuni2020@gmail.com

Received: Octeober 31, 2024
Reviewed: December 4,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23, 2024